

'의원직 상실' 최명길 "재판은 소를 개로도 만들어"

등록 2017.12.05 11:43:21



【서울=뉴스시스】홍효식 기자 = 국민의당 최명길 최고위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차 최고위원회회의에 참석해 예산안 관련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12.04. yesphoto@newsis.com

"죄송한 마음 크지만 죄 지은 사실 없어...부끄럽지 않다"

【서울=뉴스시스】김난영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형(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은 5일 "재판은 소를 개로 만들 수도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여러분이 소중한 표로 만들어주신 국회의원직을 잃었다. 우선 죄송한 마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억울한 마음 한이 없지만 법적으로는 (더) 이상 항변할 길이 없어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죄송스러운 마음은 크지만 제가 죄를 지은 사실이 없기에 부끄럽지는 않다"며 "합리성이 떨어지는 공직선거법 규정들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념에 따라 입당한 국민의당이 중도통합의 새로운 길을 잘 찾아가길 낮은 자세로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선고로 국민의당 의석수는 40석에서 39석으로 줄게 됐다. 아울러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에 대해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이 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정당법에 따라 최 의원이 당원 자격도 잃는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 때문에 최 의원은 국민의당 최고위원직도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

최 의원은 당내 대표적인 바른정당 통합파로, 이른바 '끝장토론' 의원총회에서 전 당원 투표를 주장하는 등 안철수 대표의 '바른정당 통합론'에 힘을 실어왔다. 아울러 최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지명한 장본인도 안 대표다. 이 때문에 이번 선고로 안 대표에게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imzero@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